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25

안철수 대선 출마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오랫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19일 〈안철수의 생각〉 출간에 이어 23일 〈힐링캠프〉 방송 출연으로 여야 기존 정치권은 제각각 견제와 공세, 동반과 환영 등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안 원장의 향후 대선 출마 방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603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7월 23, 24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0\%$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9%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안철수 출마 방식으로는 '야권 단일 후보 선호' 37%, '제3의 독자후보 선호' 40%

한국갤럽이 7월 23, 24일 양일간 전국 성인 603명에게 최근 책 발간과 힐링캠프 출연 이후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출마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야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 37%, '야당들과 연대하지 않고 제3의 독자 후보가 되는 것' 40%로 응답했다.

지지 후보별로 보면 안철수 지지자(175명)의 46%가 '야권 단일 후보', 49%가 '제3 독자 후보'를 응답해 두 의견이 팽팽했다. 반면, 박근혜 지지자(237명)는 '야권 단일 후보'(22%)보다 '제3 독자 후보'(42%)를 더 선호했으며 문재인 지지자(73명)의 75%는 '야권 단일 후보'를 선호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208명)는 '제3 독자후보'(46%)를 더 선호했고 민주통합당 지지자(134명)는 '야권 단일 후보'(66%)를 선호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무당파 222 명)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31%)보다 ‘제 3 독자 후보’(42%) 응답이 더 많았다.

• 안철수 원장 대선 출마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야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	야당들과 연대하지 않고 제3의 독자 후보로 출마	모름/의견없음
전체		603	37	40	23
성별	남성	300	40	39	21
	여성	303	33	41	25
연령별	19~29세	112	42	42	16
	30대	124	39	56	6
	40대	133	40	40	19
	50대	113	40	32	27
	60세 이상	120	22	31	47
지지 후보 (다자)	문재인	73	75	18	7
	박근혜	237	22	42	36
	안철수	175	46	49	5
	모름/없음	82	20	40	40
지지 정당	새누리당	208	20	46	34
	민주통합당	134	66	29	4
	통합진보당	21	66	28	6
	선진통일당	4	48	26	27
	모름/없음	222	31	42	27

(질문) 안철수 씨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